

DDC상의 군사학 분야 분류 전개에 관한 연구*

- DDC, KDC, LCC비교를 중심으로 -

육군사관학교 도서관
박 순 연

< 목 차 >

I. 서 론	IV. DDC 군사학 분야 분류전개의 문제점
II. 군사학의 학문적 체계	V. 개선방안
III. 각 분류표상의 군사학 주제 전개의 전반적인 구성형식: DDC, KDC, LCC	VI. 결 론

I. 서 론

1. 연구목적

도서관의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유용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보를 분류하고 배열하는 것은 보다 중요한 일이다.

전세계적으로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정보사회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 어떻게 분류,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정보의 홍수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때 보다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학문 영역의 세분화·전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의 산물인 정보를 가공하는 분류 작업도 그와 같은 학문 발달의 조류에 부합되어야 한다. 분류의 기준인 분류표도 그러한 학문의 발전 경향과 이용자 요구의 변화 등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분류표의 개정 작업은 그 주기가 길고, 학문의 발달을 항상 뒤따라가며, 모든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등의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학문 분야의 경우와 같이 군사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제경쟁시대에서 보다 중요시 되고 있는 군사학에 관련된 자료 분류시 도서관 현장에서 당면하는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이 논문은 저자의 석사학위논문(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2)을 요약 발표 한 것임.

첫째는 군사학이 그 중요성은 인정되더라도 아직 학문적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분류 대상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대사회에서 군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군에 관한 여러가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군대심리, 전쟁철학, 군대윤리, 군대제도와 조직, 민군관계, 군사(軍史), 군대행정 등 많은 군관련 분야에 대한 이론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군사문제의 학문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군사학은 실로 다학문적인 특성이 강하다. 그런데 이 각각의 분야가 총체적으로 종합된 군사학 전체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학문적 이론체계에 의한 조직적인 자료분류를 할 수 없고 군사학 분야의 분류표 분석시 근거 있는 이론의 제시도 어렵다. 이점은 도서관 실무가 시작되는 수서업무 수행시에도 체계적인 군사학 장서 개발을 위해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지 그 대상과 범위의 파악조차 불명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는 군사학 분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분류표 자체가 여러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많이 사용중인 분류표의 예로 우선 문헌정보학의 분류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DDC와 KDC가 있다.

그러나 현재 DDC 최신판인 21판의 군사학관련 주제는 7년 전에 발행된 20판과 비교시에도 거의 변화된 사항이 없을 정도로 학문과 실제 군 조직의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군사 분야의 학문과 군 현장의 변화 속도는 오늘날 과학

의 발전에 따라 급속히 진행되므로 현실과 분류표간의 격차는 점차 더 벌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군사학 분야의 DDC의 전개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실제 분류자가 군사 자료를 DDC로 분류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DDC의 군사학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집중 분석하고 아울러 DDC와 함께 현재 가장 대표적인 LCC 및 국내의 분류표인 KDC를 비교 분석하여 DDC의 실제적인 이용과 장래 DDC 전개의 올바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연구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군사학의 학문적 체계는 군사학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2) 군사학의 다학문적인 주제 분포에 대한 분석은 군사학 분야 상관색인어를 조사하여 파악하였다. 이것은 「DDC 21, v.4 Relative Index(899 p.)」의 용어와 「최신군사용어영한사전」(서울: 연경문화사, 1997, 1511 p.)의 용어를 비교 분석하여 일차 추출하였고, '355-359', '623'에 속하는 용어중 이때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추가 하였다.

(3) 분류표는 DDC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고 이와 함께 LCC 및 KDC 세 분류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때 각 분류표는 다음과 같이 최신판을 선정하였다: DDC 21판(1996), LCC 1996년 발행판, KDC 4판

(1996).

(4) 분류표 분석시 DDC의 군사관련 주제 중 주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주제 분야는 군사학 주제가 집중되어 있는 군사사 회과학과 군사공학 분야로 선정하였다.

(5) 각 분류표의 판차별 변천과정에 관한 분석은 제외하였다.

(6) 새로운 분류표를 만들거나 DDC의 기본 구성을 수정하는 방안 연구는 지양하였다: 현재 사용중인 DDC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 선행연구 개관

분류표의 분석에 관한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으나 본 논문의 주제와 동일한 군사학에 대한 분류표를 비교 연구한 논문은 없다.

분류표 연구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를 보면 페롤트(Jean M. Perreault : 도서관의 자동화), 랑가나단(S. R. Ranganathan), 노제티(Milton Nocetti: 토양학 분야의 구조), 버마(S. R. Varma: 통계학), 베리(Susan Bury: 배열 순서, 상환성, 적용성, 상호관계), 헷셀(R. H. Hassel: 음악), 소데크(Miluse Soudek: 심리학) 등의 연구가 있다.

일본에는 DDC와 NDC의 전 주제 분야를 요목(要目)까지 서로 비교한 「比較分析法概論」이 있다.

국내에서도 분류표에 관한 연구가 비교 분석, 단일 분석 등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선행되었다.

이병수는 DDC, KDC, NDC를 중심으로 총류, 종교,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교육

학, 국방 군사 및 민속학, 어학과 문학, 생물과학·동물학 분야등을 비교 분석 하였다. 뒤에 이것들을 모아서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손정표 교수는 정치, 경제사회적 제 주 의의 분류에 관하여 KDC와 DDC를 중심으로 표를 비교하였고 심의순은 특수교육 분야를 분석하였으며, 이양숙은 가정학 분야 분류표(KDC, DDC, LCC, NDC등)를 비교 분석한 바 있다.

그외에도 선행 연구된 분야를 보면 경제학, 총류, 법률학, 교육학, 수학, 심리학, 어문학, 음악, 철학, 동물학, 해양학, 종교, 역사 및 지리류, 한의학 등의 주제 분야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에서 분류표에 관한 연구는 상당수 이루어졌다. 그중 군사학 분야 분류표는 이병수가 일찍이 다룬 바 있지만 다른 주제 분야들을 분석하면서 군사학도 함께 아주 개괄적으로 분석하였을 뿐이다. 군사학을 학문적 체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군사학에 대한 여러 분류표를 서로 비교하여 연구한 내용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

II. 군사학의 학문적 체계

1. 군사학의 특성

‘군사학’이란 용어에 대한 정확한 혹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정의는 아직 없다. 이렇게 군사 문제의 학문적 정형화 또는 체계화가 미진한 이유는 군사학의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이다.

첫째, 군사 분야 연구는 전쟁과 연결된 것으로서, 연구의 현실적 필요성과 학문 연구에 필요한 도덕적 당위성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군사 분야의 연구는 실천적 적용을 위한 전문성이 강하여 학문적 체계 정립을 위한 보편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군사학 정립의 필요성을 약화시켜 왔다.

셋째, 학문체계로서 군사학의 정립을 저해해온 또 하나의 요인은 군사 문제의 범과학적(trans-scientific) 산재성(散在性)에 기인한 군사학의 종합 과학적 속성이다.

군사학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군사학이 하나의 학문 분야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군사학이 학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전통주의적 견해와 될 수 있다는 진보주의적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군사학의 학문적 체계화의 당위성은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정 사실로 되어 있어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련에서는 군사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육군지휘참모대학에 군사학 석사학위 과정과 육군대학원에 안보학 석사·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그외 영국의 킹스칼리지(Kings College)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두고 있는 등의 예를 볼 때 이미 군사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군사학의 연구 분야 및 내용

군사 문제의 복합적 성격, 군사 문제를 보는 시각과 방법론의 차이, 군사론을 다루는 연구 분야의 보편적 개념 정립의 부재 등으로 인해 군사학의 범위와 그 주요 내용이 명백하게 규정된 통설(通說)은 아직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군사 문제에 관한 많은 연구 업적들은 군사학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구체화 시키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줄리안 라이더(Julian Lider)는 지금까지 군사문제를 다룬 업적들을 종합하고 앞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들을 망라하여 「군사론, 1983」이라는 저서를 발간했다. 여기서 라이더가 제시하고 있는 군사 문제 연구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군사 문제의 사회·정치적 분석 범주: ① 일반이론(군사 문제의 연구를 위한 방법론, 다른 학문과의 관계, 분석을 위한 기본 구조와 개념) ② 군사력 이론 ③ 전쟁론 ④ 군사력 ⑤ 제 이론의 비교 연구

(2) 군사력의 운용이론: ① 일반 이론(전략, 군사술, 기타 군사력 운용에 관한 과학적 연구 방법론 등) ② 평화시의 군사력 운용 ③ 군사술(military art) 이론 ④ 전시를 위한 평시의 군사력 준비 이론 ⑤ 군사 경제 ⑥ 군사 기술과학 ⑦ 군사사(military history) ⑧ 주변 학문 분야(군사교육, 군사심리, 군사지리, 군사항해학 등

(3) 군사 정책 이론: ① 일반 이론(군사 정책과 다른 연구 분야와의 관계) ② 군사사상에 관한 연구 ③ 전력 태세

라이더의 이론에 대해 국내 운창일 교수는 이 군사이론 체계는 너무 포괄적이

어서 보다 함축적이고 관리 가능한 군사학 체계의 정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사학 학문 체계를 보편화 시키는 방법으로 전쟁과 평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를 중심으로 범주를 설정하여 체계화 하는 것을 제안 하며 군사학의 연구 분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1) 전쟁과 평화 연구: 사상, 본질 및 역사

(2) 군사정책, 전략, 제도, 동맹 외교 연구: 이론 및 비교 분석

(3) 군사력의 구성 연구: 규모·종류·형태, 지휘·통수 체계, 성격·조직·관리 체계, 무기체계

(4) 군사력의 운용 교리 연구: 전술학, 화기학, 참모학, 기타 관련 주제

이와 달리 1979년 10월 1일 육군본부에서 발행한 「간부 정예화 방안」 중 제5장 제4절(군사학의 내용)에서는 군사학을 ① 국가안보문제 ② 군사 역량 및 사용 ③ 군사교리 및 전략·전술 ④ 군사정보 ⑤ 군사제도 ⑥ 군사관리 ⑦ 지휘·통솔 ⑧ 연구·분석방법의 8개 분야로 구성해서 설명하고 있다.

국내 경우를 계속해서 보면 이종학 교수는 군사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학문 분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1) 전쟁철학 (2) 전쟁학

(3) 전쟁사학(戰爭史學) (4) 군사기술 (5) 군사교육학 (6) 군사지리학 (7) 군사보조학문: 기상학, 법학, 위생학 등

이종학 교수의 이론은 보다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황병무 교수는 다양하게 명명하고 있는 학문의 명칭을 “군사학(military studies)”

으로 통일하여 공식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학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군사학을 인문, 사회학 분야만이 아니라 자연과학과 공학의 여러 분야를 다루는 “학제적 종합 과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 왜 국가는 무장을 하는가?: 국가, 국제체제론; 전쟁론, 광의의 분쟁론.

(2) 군사력은 무엇인가?(군사력의 대내적 기능): 국내 질서의 유지와 법 집행 및 국권과 국익의 보호, 군사력의 임무와 기능의 역사적 변화, 군대의 조직과 구조 분석, 군사력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군사주의와 제3세계의 저발전(低發展)과의 연계, 군사력 개념, 구성요소와 측정방법.

(3) 군사력의 운용(전·평시 대외기능): 전략 연구의 개념 확대, 전략차원 분석, 전략이 사용되는 방법, 전략의 통칙, 전쟁양상(warfare) 본질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 문제와 군사술에 관련된 연구, 전구의 작전전략과 지리와 병참적 요인 관계 분석, 군사술의 원칙, 또는 전쟁 원칙.

(4) 군사력의 준비: 군사정책, 국방정책, 군사교리, 국방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관리, 대외 군사협력, 무기 무역·이전, 이론의 발전, 군비통제(軍備統制)와 군비축소(軍備縮小), 전쟁사 연구, 군사기술, 군사교육문제.

최근 육군사관학교에서 수행한 군사학 학문 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에서는 군사학을 다음과 같이 5대 분야로 대별하고 있다(「군사학 학문 체계 정립 및 학위 수여 방안 연구」/ 육군사관학교, 1999):

(1) 전쟁의 본질 및 형상 연구 (2) 안보 정책 연구 (3) 군사력 운용 연구 (4) 군사

력 건설/유지 연구 (5) 전쟁 및 군사력 연구 관 분야 연구.

한편 미국의 경우는 미 육군 지휘참모대학의 '장교의 전문화 발전 과정'의 일환으로 설정한 "군사학" 연구 범위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10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CGSC, 76-77 catalog: v.1~6): (1) 참모운영과정 (2) 관리과정 (3) 전술과정 (4) 군수과정 (5) 군사정책수립과정 (6) 응용전사과정 (7) 저압분쟁연구과정 (8) 연합군 및 기타 관계과정 (9) 군사전문직업과정 (10) 교육과정

다른 여러 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러시아에서는 군사학이 일찍부터 체계화되어 하나의 학문으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학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군사학의 공통 기반(총론) (2) 군사술 이론 (3) 군대건설 이론 (4) 군인 교육 및 교양이론 (5) 군사 경제이론 (6) 군사사(軍事史) (7) 군대 지휘이론 (8) 무장론 (9) 군사학과 기타 과학과의 상호관계: ① 사회과학의 군사적 제 문제, ② 이학의 군사적 제 문제, ③ 공학의 군사적 제 문제.

이외의 여러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군사적인 초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연구 경향의 영향을 직접·간접적으로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각 국가가 처해 있는 군사 환경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정책과 군사력의 수준에 따라서 군사 문제 연구 경향이 다소 차이가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군사력을 개발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교리 연구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이러한 공통점을 정리해 보면 군사학은

사회과학, 인문과학, 이학, 공학, 의학 등 제반 학문 분야에 바탕을 둔 종합과학이면서 전쟁과 평화를 포함하는 국가안보와 군사력 운용에 관련된 문제를 주로 연구하는 고유 영역을 가진 학문이다.

이상과 같은 군사학의 범위를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DDC상에 적용시켜 보면, 먼저 군사학이 종합과학이라는 특성은 군사관련 주제가 분류표 '000'대부터 '900'대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분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군사학이 고유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은 DDC에서 어느 특정 부분에 군사 주제가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학이 다학문적이며, 또한 고유 영역을 지니고 있다는 특성은 실제 DDC상의 군사관련 주제의 분포 현황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주제의 분포 현황은 다음 장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Ⅲ. 각 분류표상의 군사학 주제 전개의 전반적인 구성 형식: DDC, KDC, LCC

현대의 문헌 분류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DDC와 LCC이며 국내의 분류법으로는 KDC가 대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이상의 세 분류표를 채택하여 비교 분석하겠다.

DDC에서 군사학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DDC 제4권에 있는 상관 색인어(Relative Index)를 분석하였다.¹⁾ 상관색인어 899페이지

<표 1> DDC상의 군사학 분야 상관색인어 분포 현황표

분류번호	주 제	용어수(개)	비 율(%)	비 고
000	총류	57	1.67	
100	철학, 비과학적 현상, 심리학	44	1.29	
200	종교	32	0.93	
300	사회과학	1,399	40.89	(355-359, 822개 / 24.02%)
400	어학	5	0.15	
500	순수과학	359	10.49	
600	기술과학	984	28.76	(623: 404개 / 11.80%)
700	예술	64	1.87	
800	문학	3	0.09	
900	지리, 역사	474	13.86	
계		3,421개	100%	(355-359, 623: 35.82%)

지에 걸쳐 추출된 순수 군사학 및 군사학 관련 주제 용어 수는 총 3,421개 이다. 이것으로 군사학 분야 상관색인어 분포 현황을 분석해 보면 <표 1>과 같으며 이것을 도표로 그려 보면 <그림 1>과 같다.

<표 1>을 보면 '000'에서 '999'에 이르기까지 전 주제분야에 걸쳐 군사학 관련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학문간의 비중은 다르지만 군사학이 다학문적이라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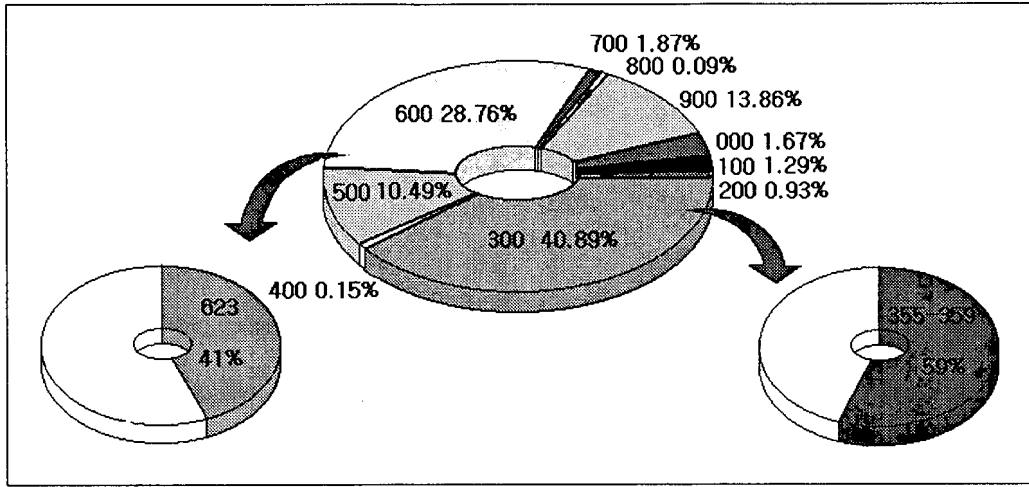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각 주제 분야중 특히 사회과학에 군사학 관련 주제가 40.89% 집중되어 있어 군사학이 사회과학과 관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기술과학 분야로 28.76%가 집중되어 있어 군사학에서 기술과학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사회과학과 기술과학내에서도, DDC 본표에서 군사학이라고 명시 있는 '355-359'와 '623'에 속하는 군사 용어 비율이 각각 59%, 4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DDC에서는 전 주제에 걸쳐 군사학을 다루면서도 주로 군사사회과학과 군사공학으로 2분하여 군사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점은 KDC상의 군사학 전개 형식과도 동일하다. 그러나 LCC에서는

1) 연구 방법: 「DDC 21, v.4 Relative Index(899 p.)」의 용어와 군사용어 사전중 최신판인 「최신군사용어영한사전」(서울: 연경문화사, 1997, 1511 p.)의 용어를 비교 분석하여 이 두 자료에 공통되는 용어를 일차적으로 추출 하고, 군사관련 주제인 '355-359'와 '623.1-.7'사이 에 있는 용어중 일차에 상관색인에서 추출되지 않은 것을 추가로 조사하였으며, 기타 군 관련 용어로 간주되는 용어들을 상관색인에서 모두 추출/정리하였다.



<그림 1> DDC상의 군사학 분야 상관색인어 분포도

- 그림 중앙: DDC 전반에 걸친 군사학의 분포도
- 그림 좌: DDC '600'대 내에서 '623(군사공학)'의 비율
- 그림 우: DDC '300'대 내에서 '355-359(군사사회과학)'의 비율

이 두 분류체계와는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 'class U, Military Science'라는 하나의 주류(main class)에 군관련 주제가 사회과학이나 공학등의 특별한 구별 없이 각 강(division)의 주제 아래 혼합 전개되고 있다. 해군관련 논제는 'class V, Naval Science'로 별도 설치되어 군사학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사회과학이나 공학 등의 구별 없이 각 주제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각각 전개 구성 형식을 다소 달리하고 있는 세 분류표의 군사학 분야 주 항목을 보면 <표 2>와 같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세 분류표의 류·강·목·세목상 계층 구조는 다소 틀리지만 전개되어 있는 대 주제의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목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부 내용들은 세 분류표가 서로 다르다. DDC에서는 주제별로 제시되고 있는 항목수가 너무 적어 분류

번호 적용시 까다로운 분야일지라도 LCC에서는 보다 많은 항목이 전개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KDC에서는 DDC나 LCC에 비해 항목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DDC의 세목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내용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며 각 대 주제의 세부 구성이 DDC와 다르게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 분야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DDC 분류 전개시 참고하면 분류표의 구조상 보다 체계적이고, 내용상 보다 풍부한 분류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DDC에서 구체적으로 군사학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군사학의 핵심 영역인 군사사회과학과 군사공학 이 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표 2> 군사학 주제의 전반적 구성 체계 비교

D	D	C	K	D	C	L	C	C
355	군사학(Military Science)		390	국방군사학		U	군사학(총론)	
	.1 군 생활 및 관습		391	군사행정			Military Science	
	.2 군용 자원		392	전략, 전술			(General)	
	.3 편성 및 인사		393	군사교육,		UA	군대	
	.4 군사작전			훈련		UB	군사행정	
	.5 군사훈련		394	군사시설,		UC	보급, 수송	
	.6 군사행정			장비		UD	보병	
	.7 군사시설		395	군특수		UE	기갑	
	.8 군사장비 및 보급품			기술근무		UF	포병	
356	보병		396	육군		UG	공병, 공군,	
357	탑승 부대		397	해군			우주항공학	
358	공군 및 기타 특수부대		398	공군		UH	기타 부대	
	공병 및 관련 부대		399	고대병법				
359	해군					V	해군(총론)	
						VA	해군학	
623	군사공학 및 해양공학		559.3	군사공학,		VB	해군행정	
				병기공학		VC	해군보급	
			559.4	항해공학,		VD	해군근무	
				선박조종		VE	해군	
						VF	해군병기	
						VG	해군 기타 근무	
						VK	해양학	
							해양 상업	
						VM	해양 건축	

1.1 학문명 표기 부적절: '355 군사학 (Military Science)'

IV. DDC 군사학 분야 분류전개의 문제점

DDC의 군사학 분야를 군사학 학문 체계 및 KDC, LCC와 비교 분석해보면 DD C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유형별로 크게 다음과 같다:

1. 전문성의 결여: 학문명 및 표목(heading) 표기의 부적절

DDC '355'는 군의 일반 사회과학적 측면만을 다루고 있으며 군사학 전체중 일부분이다. 그런데 이 번호의 주제명을 'Military Science'라 칭함으로써 이부분이 군사학의 전체인 것 같은 혼동을 주고 있다. KDC에서도 '390'대를 '국방, 군사학'이라 칭함으로써 군사공학을 포함하지 않은 이부분이 군사학의 전체인 것 같은 혼동이 여기서도 되풀이 되고 있다. LCC에서는 'U'를 '군사학 일반 Military Science (General)'로 표기하여 DDC나 KDC보다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다.

1.2 표목(heading) 표기의 부적절

1.2.1 '358.418 공군 장비, 보급품(Air force equipment, supplies)'

장비 및 보급품에 해당되는 동일한 주제가 공군뿐만아니라 육군에도 있고 해군에도 있다. 그 표목의 표기를 보면 육군과 해군에서는 모두 표목이 'equipment and supplies, weapons(ordnance)'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분류표에 공군 무기에 대한 기호들도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공군만 '무기'에 대한 언급이 표목에 없는 것은 주제명의 표기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된다.

1.2.2 '355.46 연합작전(Combined operations)'

DDC '355.46 연합작전(Combined operations)'은 정의주와는 일치되지 않는다. 즉, 정의주가 설명하는 용어는 '합동작전(joint operations)'이다. 이렇게 표목의 주제와 정의주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않는 것은 학문적인 전문성 결여의 한 원인이 된다.

2. 항목위치 부적합

2.1 '355.341-.347'의 주제들

DDC '355.3'은 군대의 편제와 인사에 관한 부분이다. 그런데 그 아래 전개되어 있는 '355.34 비전투 근무'라는 주제는 이 세목의 상위 주제인 군대의 편성과 인사라는 주제와 상관성이 적다. 이러한 주제들은 여기보다는 병과별 부대근무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356-357 육군'에 더 가깝

다.

2.2 '358.18 기갑'

기갑부대가 그 기원이 같은 기마대 및 기병대 등의 주제가 있는 '357 탑승 부대'에 설치되지 않고 미사일 부대나 포병과 같이 관련성이 적은 곳에 전개되어 있는 것은 항목 위치를 부적절하게 설정한 것이다. 또한 유사 주제를 여러 곳에서 설치하여 주제 전개가 중복된다.

2.3 '358.1-.3 미사일 부대, 포병, 공병, 화생방전

DDC의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포병, 공병, 화생방전은 모두 육군의 각 병과별 부대 근무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주제들을 육군과는 범주가 다른 '공군'과 함께 혼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구성상 체계적이지 못하다. LCC와 KDC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주제들을 모두 육군내에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각각 독립적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2.4 '623.71-.72 정보, 정찰, 지형학, 사진술, 사진측량술

정보, 정찰, 지형학, 사진술, 사진측량술이 모두는 효과적인 위장 및 은폐를 위한 사전 지식이다. 이러한 주제들이 그와 관련이 깊은 '623.77 위장 및 은폐'라는 주제가 있는데도 인접해서 배치되지 않아 주제 전개 순서가 적합하지 않다.

2.5 '623.8 해양공학 및 선박조종술

'해양공학 및 선박조종술'은 군사공학과

는 크게 관련이 없는 순수 해양공학이다. 다만 '623.825-.826'에 있는 해군 병기에 관한 항목만을 군사공학에 설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주제를 군사공학이 대부분인 '623'에 군사학과 함께 구성해 놓음으로써 군사학과 일반학의 혼용을 초래하고 있다

3. 주제 구성의 불합리

3.1 육·해·공군의 불균형 처리

각군은 규모의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중요도에 있어서는 동등하다. 그런데 DDC에서는 각 군의 처리 방식에 있어서 계층 구조상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공군을 '359 공군 및 기타 특수부대; 공병 및 관련 근무'에 설치함으로써 육군의 병과부대와 혼돈을 초래하고 있고 육군의 일부분인 것 같은 혼란을 주고 있다. 또한 육군과 해군은 '목(section)'의 위치를 부여하면서 공군은 계층상 그 하부 조직인 '세목(subsection)'의 위치를 할당함으로써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 LCC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KDC에서는 앞의 두 분류표와는 달리 육·해·공군을 동등하게 처리하여 이 점에서 가장 짜임새 있는 구성을 하고 있다.

3.2 '358.12-.16 포병', '623.41-.43 포'

육군포병, 해안포병, 방공포병은 모두 육군포병에 속하는 것인데 각각 개별적으로만 다루고 있다. 이 경우와 유사하게 '623.41-.43'에 걸쳐 전개되어 있는 주제들도 모두 화포에 관한 것인데 각각 별도의 세부 항목만을 설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괄적이거나 보다 상위인 개념을 수용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3.3 '623.1-.3 축성학, 지뢰, 방위공학

DDC 군사공학 앞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623.1-.3'의 '축성, 지뢰 부설·제거 및 폭파, 방호용 공사'는 KDC에서는 '군사토목학 Military Civil Engineering'으로 통합되어 있다. 이것은 세 주제가 모두 토목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근거이다. 그런데 DDC에서는 이러한 세부 주제를 보다 상위 주제들과 같은 계층에 설정하고 있어 주제 구성이 불합리하다. 또한 유사 주제가 그보다 상위 계층에 일일이 나열됨으로써 그 계층에 추가 설치가 필요한 주제 항목을 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4. 항목의 높은 밀집도

서로 관련성이 적거나 관련이 없는 주제들을 한 항목에 전개하여 주제 파악에 혼란을 초래하고 분류번호가 한 곳에 몰려져 밀집도를 높게 만든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358.417-.418 Air forces installations, equipment, supplies'라고 표기함으로써 두 분류번호간의 주제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분류번호가 포함하고 있는 주제를 모두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358'에는 육군의 여러 병과와 공군, 우주 부대 등 여러 부대를 혼합하여 배치함으로써 분류번호의 밀집도가 상당히 높다. 반면에 '356-357'의 육군관련 주제번호는 비어 있는 번호가 많아 번호 전개의 여지가 높아 밀집도의 구성상 상호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358.2 공병 및 관련 근무 Army engineering and related services'에서 보면 '공병'아래 '통신'과 '수송'이 세부 항목으로 전개되어 있다. 이 주제들은 서로 연관성은 많으나 각각 독립적인 병과부대이다. 그런데 공병의 아래에 설치 함으로써 다른 두 병과가 공병에 속해있는 것 같은 오해를 주고 있다.

이외에도 '623.7'에 포함되어 있는 주제를 보면 '정보 및 정찰 지형학, 사진술, 통신, 차량, 위생공학, 전기공학, 위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주제들은 서로 관련성은 있지만 모두 독립 주제들로서 각각 별도 항목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시사성, 현실성 결여: 항목의 부족, 주제 파악 곤란

DDC는 1989년 20판이 발행되었고 최신판인 21판은 1996년에 발행되었다. 발행년이 7년이나 차이가 나지만 이 두 판의 군사학 분야 항목을 대조해 보면 거의 변화가 없다. 단지 '군사적 연구'가 '355.0072'로부터 '355.07'에 재배치되었고 '355.6 군사행정' 분야는 '351-354'의 비군사적 기관들에 이용할 수 있는 행정의 제 측면에 대비하기 위해 개정 및 전개된 정도이다. 이외의 개정된 부분으로 두 가지 정도의 예를 더 들 수 있을 뿐이다. 한 가지는 표목의 항목이 분리된 예로 '권총(pistols: 623.4432)'과 '탄약회전식 권총(revolvers: 623.4436)'의 분리가 그 보기이다. 다른 하나는 포함주의 주기에 포함되어 있다가 표목으로 설정된 예로 '용병부대(Mercenary

troops: 355.354)'의 처리가 그러한 경우이다.

7년이 지나 개정된 21판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사관련 분류기호들은 항목이 추가되거나, 수정 혹은 보완된 것이 별로 없어 학문의 발달에 비해 시사성이 뒤떨어진다. 그리고 현대 과학 무기의 발달과 함께 최신화된 군의 현장을 반영하는데 있어서도 분류표가 미비한 점이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다. 특히 무기공학이 중심인 군사공학 부분에서 이러한 결점이 더욱 대두된다. 이와 같은 분류표의 현장감 부족, 시사성 낙후 등의 결과로 분류자가 분류 작업을 할 때 해당 되는 주제를 찾기가 힘들며 이것은 자료의 이용시 효과적인 검색의 실패 요인이 된다.

6. 주기(註記)의 빈약: 포함주

비교 분석한 세 분류표 중 DDC가 가장 여러 가지 주기(註記)를 많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목(heading) 아래 그 내용을 보조하는 각종 주기(註記)가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전문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 전문 주제를 다룰 때 분류표상의 개념이 분류표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주제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DDC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7. 군사학의 분산

DDC 주류(main classes)의 구성이 학문 구분을 기본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같은 주제라도 모두 분류표상 동일 위치에 분류될 수 없다. DDC의 서문(DDC v.

1, p. xxxii)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원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특정한 주제를 위한 유일한 위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 주제는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서 나타난다. 즉, 동일 주제가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여러 학문에 걸쳐 분산되어 분류된다. 이러한 현상은 자료 분류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KDC와 LCC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LCC는 군법에 관한 군사 주제는 법률학에 포함 시키고 있으며 전쟁사에 관한 많은 주제들은 역사학 분야에 설치하고 있는 등으로 인해 군사 분야가 각 주제에 걸쳐 흩어진다

주제의 분산 정도와 해당 도서관의 성격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도 다를 것이다. 해당 도서관이 특성상 군사관련 자료를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면 군사자료의 심한 분산은 관리와 이용의 두 측면 모두에서 문제시 된다. 이와 같이 자료의 집중과 분산에 관한 처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남아 있다.

이상에서 DDC상의 군사학 분야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해보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V. 개선방안

DDC의 문제점들을 앞 장에서 몇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았다. 유형별 문제점에 대한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한다

1. 학문명 및 표목(heading) 표기 수정·보완: 전문성 제고

① '355 군사학(Military Science)'을 'Military Science (General)'이라고 표기하여 'General'을 추가한다. 이미 LCC에서 이와 같이 표기되어 있듯이 '포괄적, 일반적'이라는 의미를 보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초보자가 분류표상에서 군사학으로 접근할 때 '355'가 군사학의 전체라는 오해를 주는 표기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358.418 공군 장비, 보급품(Air force equipment, supplies)'을 'Air force equipment, supplies, and weapons(ordnance)'로 보완한다. 그럼으로써 육군, 해군 내의 동일 주제에 대한 표기명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표목의 내용과 그 아래에 전개되는 세목들의 내용들이 일치되도록 한다.

③ '355.46 연합작전(Combined operations)'은 '합동작전(Joint operations)'으로 수정한다. 정의주가 설명하는 내용대로 표목을 수정하고 현재의 표목인 연합작전도 중요한 주제이므로 추가로 별도 항목을 설치하도록 한다.

④ '355.81 의복, 음식, 캠프 장비, 사무용품(Clothing, food, camp equipment, office supplies)': 현재의 표목 내용들을 모두 함축하는 포괄적인 용어인 '일반 보급품'으로 표목을 수정하고 표목으로 나열되어 있는 용어들은 세목에서 각각 전개하도록 한다.

2. 항목의 위치 재배치

① '355.341-.347'의 주제들을 '356-357 육군'으로 이동 시킨다. DDC '355.3'은 군대의 편제와 인사에 관한 부분이다. 그런데 그 아래에 전개되어 있는 '355.34 비전투 근무'라는 주제는 이 세목의 상위 주제인 군대의 편성과 인사라는 주제와 상관성이 적다. 이러한 주제들은 여기보다는 병과별 부대 근무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356-357 육군'에 더 가깝다.

② '358.18 기갑'을 '357 탱승 부대'로 이동한다. 같은 맥의 주제를 한 곳에 설치함으로써 동일류의 주제가 설득력있는 이유도 없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 하도록 한다.

③ '358.1-3 미사일 부대, 포병, 공병, 화생방전'은 '356-357'로 이동시킨다. 포병, 공병, 화생방전은 모두 육군의 각 병과별 부대 근무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주제들을 관련 있는 부분으로 옮기도록 한다.

④ '623.71-.72 정보, 정찰, 지형학, 사진술, 사진측량술'을 '623.77 위장 및 은폐' 옆으로 옮겨 유사 주제가 인접하게 배치되도록 한다.

⑤ '623.8 해양공학 및 선박조종술'을 군사공학이 대부분인 '623'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 시켜 군사공학과 일반 해양공학과와의 혼돈의 여지를 피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공학에 필적되는 항공공학(629.1)이 있는 '629'로 재배치할 것을 제안 한다.

⑥ 앞의 ⑤번항에서 제시한 '623.8'의 이

동시 '623.825-.826'의 해군 수송선에 관한 항목은 육군과 공군의 수송기가 있는 '623.7'로 이동시켜 군사공학에 포함시켜 육·해·공군의 주제가 균등하게 구성되도록 한다.

3. 주제항목의 재구성

3.1 '358.4' 공군을 목(section)의 위치에 설치하고 독립번호 부여: 육·해·공군을 동등하게 처리한다. 세 분류표중 KDC만 육·해·공군을 동일 계층에 배치하고 있다. DDC에서도 공군을 육군이나 해군과 같은 계층인 목(section)에 상응하는 항목에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적절한 항목으로 '358'을 제안한다. 현재 이 번호에 전개되어 있는 대부분의 주제는 육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주제들은 보다 어울리는 곳으로 재배치하고 '358'은 공군에 관련된 주제를 전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2 개별 세목을 묶어주는 상위 분류번호 설치: '358.12-.16 포병', 과 '623.41-.43 포'를 묶어주는 각각의 상위 분류번호를 설치한다. '358.12-.16'에 있는 육군포병, 해안포병, 방공포병은 모두 육군포병에 속한다. 또한 '623.41-.43'에도 각 포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다. 주제의 계층 구조를 명확하게 하고 포괄적인 주제를 분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두 부분의 세목들을 각각 묶어주는 상위 번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623.1-.3'은 '군사 토목학'으로 표목

을 통합·수정한다. ‘축성, 지뢰 부설·제거 및 폭파, 방호용 공사’로 되어 있는 ‘623.1-.3’의 표기를 KDC에서처럼 ‘군사토목학’으로 통합·수정한다. 그리고 각 주제는 그 아래 세목으로 전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계층에 있는 다른 주제들과 학문 비중도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주제의 중요도에 비해 하부 구조에 취급되어 있는 ‘통신(623.73), 수송차량(623.74)’ 등의 주제를 보다 상위로 재구성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도록 한다.

4. 항목의 세분·분리, 확대

서로 관련성이 적거나 관련이 없는 주제들을 한 항목에 전개한 것을 분리하여 주제 파악이 명확해지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한 번호에 집중되어 있는 주제를 분산시킴으로써 밀집도가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한다. 이때 분리시키면서 필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여 주제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 각각의 예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355.8 의복, 음식, 캠프, 사무용품’: 이것은 무기, 장비 등 특수 보급품이 아닌 일반 보급품에 관한 항목이다. 이 주제에 대한 사항을 LCC와 KDC를 참고해서 보면 의복과 장비, 급식, 내무반(병영) 사무용품, 군마보충품, 소모품, 유류 등이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한 표목에서 밀집하여 다룬 것을 세분하여 각각 독립 항목에 설치하고 이때 빠진 사항은 추가하여 항목을 확대 한다.

② ‘358.417-.418 공군 시설, 장비, 보급품(Air forces installations, equipment, supplies)’을 ‘358.417’과 ‘358.418’로 세분하

고 표목을 일부 보완하여 ‘Air forces installations’과 ‘Air forces equipment, supplies, ordnance’로 각각 표기한다.

③ ‘358.2-.25’ ‘공병’아래 전개되어 있는 ‘공병, 통신, 수송’을 따로 분리하여 공병과 동일 계층에 각각 설치한다.

5. 항목의 신설, 추가

현대 군사학의 학문적 특성과 첨단 무기 개발로 무장된 군의 현실을 수용하기에는 DDC 21판의 분류 번호는 빈약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신 개념은 물론 기존의 개념도 분류표에서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류표에 없는 항목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 이미 있는 항목도 필요에 따라 항목의 주제를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확장 혹은 신설해야 하는 항목의 범위를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시 한다.

① ‘고대병법’: ‘355.4’에 고대의 전략, 전술을 위한 항목을 추가한다.

② ‘비전시 군사작전’: ‘355.4’에 비전쟁시 군이 수행하는 작전에 관한 항목과 그 세부사항(소요진압작전, 대테러작전, 국가시책작전, 군사력시위작전, 평화유지작전, 비전투원 후송작전, 군비통제, 민간기관 지원작전, 재해구조작전, 안보지원작전, 대마약지원 작전)을 추가한다.

③ ‘합동작전’: ‘355.4’에 합동작전을 추가하여 기존에 있는 연합작전의 개념과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그리고 군의 제반 작전이 연합 혹은 합동으로 실시되는 현실성을 반영하도록 한다.

④ ‘군인 신체 훈련, 군사체육’: ‘355.5’에 군교육 중 중요한 내용인 신체훈련이나 군사체육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을 추가한

다.

⑤ ‘영구요새’: ‘623.1’에 철의 요새, 야전 축성 등을 포함하는 영구요새에 관한 번호를 신설한다.

⑥ ‘지휘·통제 무기체계’: ‘623.4’에 최근 주목되고 있는 C³ I, C⁴ I 등의 최신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휘·통제무기체계를 신설한다. 그리고 세부 항목으로 지휘자동화체계, 방공자동화체계, 화력지원자동화체계를 설정하고 각 세부 자동화체계를 포함주로 예시한다.

⑦ ‘정보·전자전 무기체계’: 전자파의 활용 뿐만 아니라 지향성 에너지를 이용하여 적의 무기체계를 공격하는 분야까지 포함하는 정보·전자전 무기체계를 623.4에 신설한다. 그 아래 지상용·해상용·항공용 정보·전자전 무기체계를 전개한다.

⑧ ‘화생방 무기체계’: 현대전에서 전시와 비전시 모두 무서운 위력을 지닌 화생방 무기체계를 추가한다. 이때 화생방전의 일부인 ‘623.4592-.4594 화학물, 생물학 작용제’는 여기에 포함시킨다.

⑨ ‘대전차 유도탄’: ‘623.4519’에 ‘대전차 유도탄’ 항목을 추가한다.

⑩ 공대지 유도탄 종류: ‘623.45192’아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추가한다.

⑪ 위장의 유형: ‘623.77’에 세부 항목으로 개인위장, 장비위장, 축성위장, 시설위장, 특수작전의 위장 등을 설치한다.

6. 포함주의 신설 및 확대

주제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포함주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포함주가 특히 많이 필요하다고 분석이 된 부분은 군사학 중 최신 개념이 제일

많고 발달의 속도가 가장 빠르며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전개되어 있는 무기체계 분야이다. 이 부분을 포함하여 포함주를 신설해야하거나 확대해야 하는 부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355.411 군수지원작전’: 군수지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 종류로 현재 제시되어 있는 ‘이동’외에 인원유지, 무장, 급유, 정비, 장병 및 체계지속을 포함주로 추가한다.

② ‘355.422 특수작전’: 특수작전이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예시한다. 즉 적 병참 차단작전, 군사시설 및 산업시설 파괴, 정보 수집, 표적획득, 요인구출, 대량살상 무기 탐지, 도피 및 탈출, 생존과 같은 작전이다.

③ ‘355.423 특수조건하 작전’: 특수조건하의 작전에 해당되는 산악지역작전, 요새 지역작전, 도하작전, 하천선 방어작전, 건물지역작전, 야간작전, 동계작전, 사막작전, 삼림작전, 정글작전을 포함주로 신설한다.

④ ‘356.118 보병 무기’: 보병의 주무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한 포함주를 신설한다. LCC를 보면 보병의 주무기인 소화기가 상세히 전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소화기 검열, 탄약, 라이플·칼빈·머스킷트, 특수무기(AK47, Bagladeriffel, Belgian army carbine, Espingole, FAL automatic rifle, Garand, Krag, M1 carbine, M-16, Mauser, Remington-Lee, Rock island, Rytterkarabin, Sharps, Snider, Springfield, United States magazine rifle, Ward-Burton, Winchester), 산탄총, 총검, 피스톨, 리볼브, 검, 세이버, 소총부대.

⑤ ‘358.12 육군 포병’: 육군포병 아래 LCC를 참고하여 기마포병, 낙타포병, 코끼

리포병, 산악포병, 포위포병, 곡사포병, 박격포병, 열차포병, 요새포병등에 관한 포함주를 추가시켜 포병의 다양함을 명시한다. 포병의 주무기와 주장비에 관한 포함주의 설정도 필요하다.

⑥ '623.45115 지뢰': 지뢰 종류로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지역표적제압지뢰, 측사지뢰, 대헬리콥터지뢰, 살포지뢰가 있다는 사항을 포함주로 신설한다.

이외에도 분류시 전문 지식 분야의 이해를 돕기위해 포함주의 신설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23.45191 공대공 유도미사일', '623.45192 공대지 유도미사일', '623.45194 지대공 유도미사일', '623.451952 단거리 지대지미사일', '623.451953 중거리 지대지미사일', '623.451954 장거리 지대지미사일', '623.7464 전투기', '623.7462 연습기', '623.7469 자동차 소총'.

7. 주제 자료실 운영: 분관 시스템의 활용

도서관 모체의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혹은 자료의 증가, 이용자의 요구 등의 이유로 특정 주제의 자료를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한 주제의 자료를 중점 관리하고자 할 때 해당 자료가 도서관 전관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면 집중 관리하기란 어렵다. 분산되는 동일 주제를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분류표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조직 운영상의 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주제자료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분산된 자료를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별칭기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흔히 참고자료에 'R'이라는 별칭기호를 부여하듯이 군사학관련 자료에 별칭기호를 부여하면 DDC 전 분야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군사 주제를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²⁾

분류표에 맞게 잘 분류된 자료들이라도 운영의 묘를 가하면 이용자들이 한층 더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자료에 접근 할 수 있다. 동시에 관리자도 자료의 조직뿐 아니라 장서개발등 많은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을 요구하는 자료에 효율적으로 인도'하고 '관리자가 자료의 선택, 보충, 갱신, 조직 등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한다는 분류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VI. 결론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정보사회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분류,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정보의 홍수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때 보다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학문 영역의 세분화·전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의 산물인 정보를 가공하는 분류 작업도 그와 같은 학문 발달의 조류에 부합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쟁시대에서 보다

2) 육군사관학교 도서관의 경우를 예로 보면 군사자료실의 군사자료에 대한 별칭기호로 'M(M, RM, PM, MCD, RMCD 등)'을 사용한다.

중요시 되고 있는 군사학 관련 주제를 DDC, KDC, LCC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군사학 전반적인 구성에 관해서 보면 DDC와 KDC는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군사학을 사회과학 분야와 공학 분야로 나누어 다룬것도 일치하며 세부 주제의 내용과 전개형식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KDC는 각 주제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만 전개하였기 때문에 상세한 분류를 원하는 대학도서관 같은 규모가 큰 도서관에는 알맞지 않다.

LCC는 군사학의 기본 구성부터 앞의 두 분류표와 다르다. 군사관련 주제를 사회과학이나 공학이라는 주제 구분없이 전 48권중 'Class U: Military Science'와 'Class V: Naval Science' 두 권에 전개하고 있다. 각 주제별 세부 전개 항목이 가장 많아 분류시 전문 지식을 이해하는 데 세 분류표중 가장 편리하다. 그러나 주제의 세분을 강조한 나머지 각 주제마다 비슷한 유형의 공통적인 요소들도 일일이 본 표상에 나열하거나, 별도의 내부 보조표로 나열하므로 주제간 계층관계가 뚜렷하지 않고 복잡하며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지리 구분도 각 주제 분야 별로 본표내에서나 보조표에서 일관성 없이 나타나고 있다. 분류표 전체에 대한 서문, 공통 보조표, 총색인 매뉴얼 등이 없어 분류시 어려움이 있다. 순수한 열거식 분류표인 LCC는 전 주제의 공통적인 초기성 기호를 마련하지 않고 주제의 다양성에 따른 세분 전개를 강조함으로써 분류표가 필요 이상으로 방대하며 분류기호는 혼합기호이므로 복잡하다.

DDC는 '000'대부터 '900'대에 이르기까지 분류표 전반에 걸쳐 군사학을 다루면서 군사사회과학과 군사공학인 '355-359'와 '623'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각 주제간의 계층관계가 뚜렷하고 주제가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어 관련 주제 파악이 쉬워 표의 조직을 이해하기가 간단하며 접근이 용이하다. 각종 주기(예: 정의주기, 범위주기, 포함주기, 타소분류주기 등)와 보조표가 풍부하며 표의 구조도 단순하여 사용에 편리하다. 이외에도 우수한 상관색인을 구비하고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어 여러 분류표 중 대표적인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 분류에 적용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군사관련 주제 전개에 있어서 DDC의 문제점으로 분석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문성 결여, (2) 항목의 위치가 부적합, (3) 주제 구성이 불합리, (4) 항목의 밀집도가 높음, (5) 시사성, 현실성 결여, (6) 주기(포함주)가 빈약, (7) 군사학이 분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1) 학문명 및 표목(heading) 표기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군사학에 접근시 혼돈 없는 명확한 출발점을 제시한다.

(2) 항목의 위치를 재배치한다.

(3) 전반적인 구성이 잘못된 주제 항목을 재구성한다.

(4) 밀집도가 높거나 관련성이 적은 항목을 분리한다.

(5) DDC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군사관련 주제를 신설하여 시사성과 현실성을

높인다.

(6) 포함주 항목을 확대 혹은 신설하여 분류표의 이해를 높인다.

(7) 주제자료실 운영과 같이 분관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산되는 주제가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한다. 분류표로 분류시 자료가 분산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을 분류표의 개선으로만 해결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의 기법을 도입하여 분류의 기본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

DDC가 다소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안으로 개선하면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DDC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은정, 「심리학분야의 새로운 문헌분류표 전개를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97.
- 具本英 編, 「분류의 理論과 實際」(서울: 서울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기술조사서, 제1-2권: 세계 주요국 편」(대전: 국방과학연구소, 1998).
- 김상범, “非戰時 軍事作戰 要所 擴大와 關係法令 檢討”, 週刊國防論壇, 제728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8).
- 노 훈, 이재욱, “미군의 군사교리 혁신 개념과 한국군의 접근 방향”, 國防論集, 제42호(1998 여름) pp. 197-224.
- 박종옥, 「육군사관학교 군사학 교육과정 에 관한 일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96.
- 박종철 역, 「러시아의 군사학」(육군사관학교, 1996).
- 孫正彪, “政治·經濟·社會的 諸主義의 分類問題”, 도협월보, 제8권, 제7호 (1967. 10), pp. 6-12.
- 오동근 역, “DDC 제 21판의 이해”, 도서관문화, vol.37, no.6(1996. 11-12), pp. 38-53.
- 溫昌一, “軍事學과 軍事學體系”, 안보학술세미나(2), (국방대학원, 1992), pp. 1-43.
- 육군본부, 「軍事理論大國化推進方向」(육군본부, 1983).
- 육군사관학교,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 및 학위 수여 방안 연구」(육사, 1999)
- 李丙洙, 「圖書分類法의 比較와 分類의 實際」(서울:國會圖書館, 1969).
- 이선영, “韓醫學文獻分類展開에 관한 研究”, 문헌정보학회지, 5집(1993), pp. 301-328.
- 최재황, “인터넷 학술정보자원의 디렉토리 서비스 설계에 있어서 DDC 분류체계의 활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5권 제2호(1998), pp. 47-67.
- 韓國圖書館協會 分類委員會, 「韓國十進分類法, 제1-2권, 제4판」(서울:韓國圖書館協會, 1996).
- 韓宗燁, 「海洋學分類上의 諸問題: 現代主要分類表를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1.

- Atkeson, Edward B., "Military Art and Science: is there a place in the Sun for it?", *Military Review*, (January, 1977), pp. 75-78.
- Bury, Susan, "Comparison of schemes for libraries", *Library Science with a Slant to Documentation*, vol. 17, no.3(Sept., 1980), pp. 73-82.
- Dewey, Melvi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v.1-4, 21st ed.」 (Albany: Forest Press, 1996).
- Hassel, R. H. 「Music in the Library: a Comparative Analysis of Several Classification Schemes」, Thesis (MAO, Chicago: Univ. of Chicago, 1980).
- Koch, Traugott, "The Role of Classification Scheme in Internet Resource Description and Discovery", (<http://www.ub2.lsu.se/desire/radar/reports/D3.2.3>).
-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Schedules, Class T: Technology」 (New York: Gale, 1996).
-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Schedules, Class U: Military Science」 (New York: Gale, 1996).
-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Schedules, Class V: Naval Science」 (New York: Gale, 1996).
- Nocetti, Milton, "Agricultural soil science in universal of classification system: a comparative analysi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vol.5, no.1(March 1978), pp. 15-20.
- Perreault, Jean M., "Comparative for administrators: a short sermon",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29, no.1(Jan. 1968), pp. 46-50.
- Ranganathan, S. R., "Comparative study of schemes for library classification", *Library Science with a Slant to Documentation*, vol.9(Summer 1972), pp. 289-315.
- Soudek, Miluse, "On the classification of psychology in general library classification scheme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24, no.2(Spring, 1980), pp. 114-128.
- Varma, S. R., "Treatment of statistics in UDC, LCC, and CC: a comparison", *Indian Library Movement*, vol. 5, no.3(Sept., 1978), pp. 90-93.